

정부, 대기업에 녹색투자 확대 요구

최경환 장관, 선진경제 도약 위해 ... 바이오·LED에 신·재생 에너지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내 대기업들에게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과 녹색산업 관련투자를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장관은 5월1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 회장단과 간담회에 앞서 “국내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선진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녹색투자를 촉구했다.

따라서 “바이오, LED(Light emitting Diode) 등 미래 유망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저감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늘려달라”면서 “정부도 녹색인증,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해 투자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0년 투자·수출·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5%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고용확대와 청년층 실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특히 한국의 취약부문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품소재 분야에서 양측이 순망치한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2>